

# Problem Statement

- Problem Statement

## 관리자(선관위)

- 기존 투표 방식에는 투표용지와 인력과 같은 많은 자원이 동원된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사용되는 자원을 줄일 수 있다.)
- 기존 선거 방식에서는 선거공보물을 우편등으로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 온라인으로 공보물을 확인할 수 있다.
- 한 사람은 한 번만 투표할 수 있다.  
->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투표를 진행한다.

## 후보자

- 선거공보물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유권자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번거롭다.  
-> 공보물 등록과 수정 사항의 빠른 반영이 가능하다.

## 투표자

- 기존의 선거는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해야 하며, 줄이 길 경우 대기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다
- 인주&도장 사용시의 실수로 인해 무효표가 생긴다 -> 오기(도장 여러명 찍는거)를 방지한다
- 후보자 정보를 우편 또는 별도의 검색을 통해서 조회 가능 -> 후보자의 정보(소속, 선거공약 등)를 사이트 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 Scenarios

동작구 상도동에서는 박민기씨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박민기씨는 PickMePickMe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관리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후보자로 변경하도록 요청을 보냈습니다. 관리자가 해당 요청을 수락하여 후보자의 지위가 된 박민기는 투표자들이 보게 될 자신의 정보(소속, 선거공약 등)를 입력하였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에서는 관리자 박준형씨는 2022년 대선을 PickMePickMe 사이트에 새로운 선거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PickMePickMe 사이트에서 보낸 지위변경 요청을 수락해주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거주중인 투표자 유호성씨는 장기 해외 출장으로 국내를 떠나 있지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도입으로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전증이 있는 유호성씨는 저번 총선을 잘못찍어 무효표가 돼버렸지만 PickMePickMe 사이트 덕분에 수전증을 극복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습니다.